

트위터에 나타난 접두어 ‘개-’의 사용 양상*

오효정** · 김종혁***

(전북대학교)

Oh, Hyo-Jung & Kim, Chonghyuck. (2021). On the usage patterns of the Korean prefix *kay-* on Twitter.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1), 1-23. A few researchers have recently claimed that the prefix *kay-*, which literally means ‘dog’,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over the past decade. Before the change, *kay-* was severely confined in terms of its syntax and semantics; it was restricted to combine with a handful of nouns, and semantically, it had the sole function of adding or boosting the negative sense of its host. *Kay-* is no longer used as such. It can virtually combine with a host of any category which has gradable meaning, as its semantics has acquired the function of an emphatic marker like *very*. A linguistic change is driven by the people who use it. As the number of people who adopt and use the new features of a linguistic item grows, the chance of its survival as a transformed linguistic entity increases.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in a precise manner how *kay-* is used in order to track the course of change it has gone through in the past and to predict its survival in the future. No such effort, however, has been made so far. In this article, we show that we can obtain an extensive amount of data showing the real time usage of *kay-* over the past decade using techniques developed in informatics and that *kay-* has indeed undergone a dramatic change, as reported by other researchers. We also show, by analyzing the data extracted from tweets tweeted during the 48 hours, that *kay-* is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contemporary Korean in the new pattern than in the old pattern, a concrete piece of evidence to back the claim that *kay-* is productively used.

주제어(Key Words): 접두어 개(prefix *kay-*), 트위터(Tweeter), 언어 변화(linguistic change), 신조어(neologism)

*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2020)에 접두어 ‘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1) a.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금, 개꿀, 개떡, 개떡, 개살구, 개철죽
- 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꿈, 개나발, 개수작, 개죽음
- c.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망나니, 개잡놈

풀어 정리하자면, 통사적으로 ‘개-’는 명사, 그것도 모든 명사가 아닌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명사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숙주명사/어근(host noun)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는 세부적인 의미 차이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헛된’, ‘정도가 심한’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본 논문의 교신저자는 ‘개-’를 (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이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정확히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한국어 화자가 접두어 ‘개-’를 (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인 교신저자와 달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접두어 ‘개-’가 사용되는 양상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묘사와 상당히 다르다. 한 네티즌이 2013년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인 (2)는 접두어 ‘개-’가 현대국어에서,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재치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2) (엄마와 중고생 두 딸과의 대화)

엄마: 엄마 친구가 야자하고 온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 했는데,
아들이 계속 ‘아 개맛있다’ 이러면서 먹길래 어이가 없다더라. 녀들은 그런 말 안 하지?

딸1: 헐 그 아줌마 개빡쳤겠다.

딸2: 언니~ 그런 말 하지마. 엄마 개어이없잖아.

젊은층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편의상 현대국어라 부르면, 현대국어에서 접두어 ‘개-’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과거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을 (2)를 통해 알 수 있다. 통사적으로는 명사뿐만 아니라 비명사 술어인 ‘맛있다’, ‘빡쳤다’, ‘어이없다’ 등과 결합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개맛있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를 숙주구에 부여하지 않는다.

접두어 ‘개-’의 위와 같은 통사·의미적 확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비속어인 ‘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배상복(2016)과 같은 이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어놀이터라는 넉네임을 가진 네티즌과 같이 ‘개-’의 역동적인 변화를 은근히 환영하고 응원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언어학자에게 ‘개-’의 변화는 단순한 관심의 대상을 넘어선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현 시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축약 형태의 많은 신조어들과 달리, ‘개-’는 기존의 어휘가 새롭게 변화한 경우로서 언어변화(language change)를 구체적이며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개-’가 과거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화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어변화에 대한 가설을 정립할 수 있으며, 이 가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개-’나 혹은 그와 유사한 어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탁(1967)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탁(1967)은 ‘개-’의 어원에 대해 두 줄 정도 언급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활발해지는데, 이는 ‘개-’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김정선의(2011), 김정선의(2013), 전은진의(2011) 등은 1개월 이상의 방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개+X’가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비속어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뒤이어 ‘개-’의 문법적 변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강희숙(2012), 노명희(2013), 장부리(2012) 등은 ‘개-’가 접사에서 부사로 발전한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의 한 예로 분석하고 있으며, 손평호(2014), 장경현(2019), 홍달호(2014) 등은 ‘개-’를 여전히 접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의존형태소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임현열(2015)은 ‘개-’가 과거의 ‘캡’으로부터 ‘캐’를 거쳐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으나, ‘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 변화란 기존에 사용되던 유형 사이에 다른 유형이 나타나게 되고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이 경쟁관계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현상이다. 더 많은 새로운 유형의 어휘가 화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더 자주 사용될수록 언어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새로운 유형의 어휘가 적은 범위의 화자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언어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와 같이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알려진 어휘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화자들 사이에서 ‘개+X’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X’가 화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비교하고, 또 각각의 유형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손평호(2014:100)가 언급한 것처럼, ‘개-’가 새로운 유형으로 광범위하게 화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통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의 사용에 대한 통계 수치가 필요한 것이다.

‘개-’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어휘가 화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언어 표본자료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 ‘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특정한 집단군으로부터 수집하여 과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집단군에서 ‘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야 ‘개-’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집단을 선택하여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자료를 얻고 녹음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는 비속어이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설사, 몇몇 화자가 사용하더라도 그 수가 현저히 낮아 분석의 대상으로 가치가 낮아진다. 실제로, 김정선외(2013)는 2011년 6월 4일 - 7월 16일까지 전국 6개 권역 초·중·고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개+X’가 187회 사용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체 빈도수가 187회이니, ‘개+X’의 유형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과거 ‘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 기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을 통해 ‘개-’와 관련된 현 시대 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 중 최근 자료인 2018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의 사용에 대한 정밀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공된 자료와 통계 수치는 ‘개-’가 현재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한편, 과거 자료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10여년 동안 ‘개-’의 역동적인 변화를 역추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수집된 자료를 정제하고 정밀히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8년 이전 자료를 분석하여 2018년도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후에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수집과 분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개-’의 변화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 본 후, 2018년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개+X’가 기존의 유형인 ‘개+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새로운 유형인 ‘개+비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통사적으로 비교한 후,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 X와 결합하는 기존의 유형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X와 결합하는 새로운 유형을 의미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한다.

2. 자료수집 및 분류

기존의 뉴스나 광고문과 같은 공적미디어가 특정인에 의해 문어체로 기술되는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구어체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다(정상준외, 2019; Oh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언어 변화가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대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twitter)라는 소셜미디어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를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1) 국내 통용되고 있는 SNS 중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2) 140자라는 매우 초단편(일명 마이크로블로그) 메시지로 구성되어 매우 압축적인 어휘들이 주로 나타날 뿐 아니라, 3) ‘좋아요’와 ‘리트윗’ 등 이용자가 원하는 메시지 즉 트윗(tweet)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 4)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하도록 공개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셜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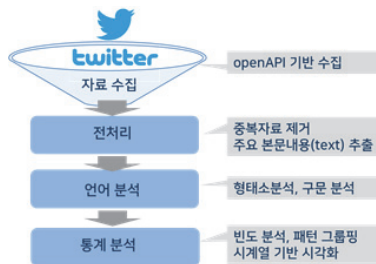


그림 1. 소셜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방법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 트윗을 수집하는 단계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소인 GitHub에 공개된 openAPI¹⁾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기(crawler)를 자체 개발하였다(Oh et al., 2020). 수집된 트윗은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은 멘션(mention) 부분으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만 추출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용자에 의해 작성된 트윗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광고성 문구가 다량으로 수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거 작업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개’가 들어간 트윗 본문에 대한 언어 분석 단계로, 형태소 분석을 비롯해 ‘개+X’의 숙주구를 패턴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자동 자연어처리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그림 3 참고). 또한 SNS라는 미디어 특성상 오타나 띄어쓰기 오류로 인한 불완전자료(garbage data)에 대한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빈도에 따라 정렬하고 숙주구의 형태에 따라 그룹핑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정제하였다.

1) GetOldTweets3 (<https://github.com/GuillaumePressiat/GetOldTweets3>)



그림 2. 수집된 트윗 예

그림 3은 그림 1의 방법론에 따른 자료 분류 예를 도식화 한 것으로, 트윗 원문과 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결과이다. (1)과 (2)는 각각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의 의존명사 ‘개’와 동물을 의미하는 명사 ‘개’의 예시문이다. (3)과 (4)는 ‘개’가 접두어로 활용된 예시로, (3)은 숙주어로 명사구(‘폭소’)가 사용된 경우를, (4)는 비명사구(‘웃기다’)가 사용된 경우를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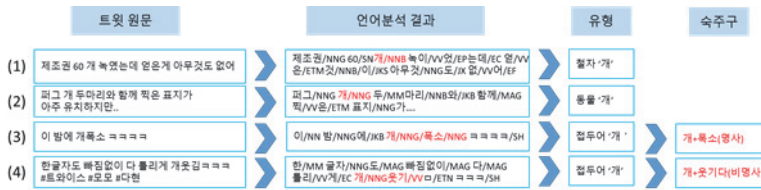


그림 3. 수집 자료 분석 예

본 연구에서는 (3)과 (4)를 주 분석 대상으로 설정, 관련 숙주구 패턴을 정의하고 같은 패턴이 들어간 트윗 멘션을 수집, 정규화하여 정렬(align)함으로써 같은 숙주구 패턴을 공유하는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그림 4는 상기 과정을 예시로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4. 숙주구 패턴 분류 예

3. 결과 및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방법은 자연어처리기술(Oh et al., 2020)을 활용한 것으로, 대량의 소셜빅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한 형태소 분석 결과에 기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분석 결과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검수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전체 데이터 수집하기 보다는 수작업 검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 기간(5월 20일과 21일)을 지정하되 시대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연도의 동일 기간 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매해 5월 20일과 21일 48시간 동안 접두어 ‘개-’가 나타난 트윗수 아래와 같다.

표 1. 연도별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연도	A(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B(‘개-’가 사용된 트윗수)
2009	53	970
2010	684	9967
2011	1252	9440
2012	2876	10443
2013	2311	11110
2014	2222	10727
2015	4444	11218
2016	4270	11083
2017	5361	11397
2018	5911	11519
합계	29384	97874

표 1 칼럼 B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가 사용된(접두어 ‘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 트윗수는 트위터가 사용되기 시작한 2009년을 제외하고 매해 약 10,000개 정도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는 10년 동안 놀랄 만큼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칼럼 A 참조).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접두어 ‘개-’가 거의 9배 정도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수와 접두어 ‘개-’만을 포함하고 있는 트윗수의 변화추이를 2010년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 6과 같다. 접두어 ‘개-’의 비약적인 발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학계의 통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접두어 ‘개-’의 사용 증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개-’가 매년 같은 폭

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은 ‘개-’의 사용이 매년 약 두배 정도 증가하지만 (2010:684, 2011:1252, 2012:2876),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개-’의 사용이 다소 줄어들면서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2:2876, 2013:2311, 2014:2222). 3년의 정체기를 지나 2015년에는 다시 두배 증가하고 1년간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2015:4444, 2016:427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 하고 있다 (2017:5361, 2018:5911). 이러한 변화의 추이가 일반적인 변화 추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와 같은 비속어에 국한된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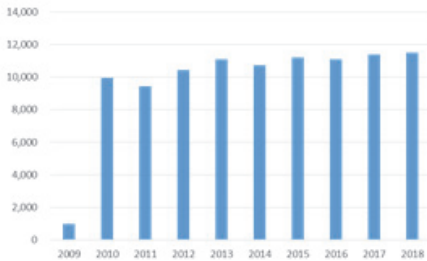


그림 5. ‘개-’가 사용된 트윗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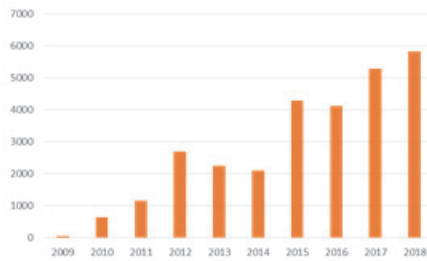


그림 6.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증가 추이

3.1. ‘개+X’ 의 통사적 사용 양상

본 절에서는 접두어 ‘개-’가 현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2018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도 5월 20-21일 48시간 동안 사용된 트윗 중 ‘개-’를 포함한 트윗수는 총 11519개 이다. 이 중 접두어 ‘개-’와 관련이 없는 경우인, ‘한 개, 개인’과 같이 철자 ‘개-’를 포함한 경우 5039개, 동물 ‘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569개를 제외하면 접두어 ‘개-’와 관련이 있는 트윗수는 총 5911개이다.

표 2. ‘개-’의 분포, 2018년 자료

접두어 ‘개-’와 관련 없는 ‘개-’를 포함한 트윗수		접두어 ‘개-’를 포함한 트윗수	‘개-’를 포함한 모든 트윗 수 (합계)
철자 ‘개-’ (예: 한 개)	동물 ‘개-’ (예: 개를 샀다)		
5039	569	5911	11519

접두어 ‘개-’가 이틀 동안 5911회 사용됐다는 사실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에 ‘개-’가 강조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다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어휘인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개-’와 유사

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화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 어휘와 사용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의 자료가 추출된 동일 기간(5월 20-21일)을 바탕으로 빈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아쉽게도 필자들이 본 논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 새롭게 데이터를 추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다른 연구를 위해 이미 추출해 놓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18년 10월 1일과 2일 사이 48시간 동안 사용된 강조부사 '완전, 완전히, 리얼'의 사용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²⁾³⁾

표 3. 동종 어휘와의 빈도수 비교

리얼	완전히	완전	개
3944	2244	23184	5911

접두어 '개-'는 '완전히'나 '리얼'과 같은 부사어 보다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되지만 '완전'에 비해서는 약 1/4정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가 '완전'과 같이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사용빈도수가 '리얼'이나 '완전히' 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은 '개-'가 트위터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접두어 '개-'가 사용된 경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자. 앞서 접두어 '개-'가 사용된 전체 빈도수가 5911개라고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5911개 중 98개를 제외하고 5813개의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논의에서 제외시킨 98개의 경우는, '개누리당'과 같이 '개'가 '새누리당'이라는 고유명사와 축약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서 접두어 '개-'의 전형인 '개소리'나 '개맛있다'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누리당'은 고유명사 '새누리당'이 없어진 현재에는 더 이상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이처럼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개체의 존폐에 따라 화자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98개의 경우 논외로 두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98개를 제외하면, 접두어 '개-'는 528개 숙주구(X)와 총 5813회 사용되고

- 2) '개-'의 자료와 '완전, 완전히, 리얼' 자료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전자에 대한 연구가 2018년 5월 말에 기점으로 시작된 반면에 후자에 대한 연구는 전자와 별개로 2018년 10월 말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자료를 얻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3) 강조부사 중 비교를 위해 표 3에 제시된 부사를 선택한 것은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실용적인 이유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신조어로서 이미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으로 알려진 '완전'(염영임·양명희(2016), 이하얀·황화상(2017))과 저자들이 파악하기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조어 '리얼'을 '개-'와 비교함으로써 '개-'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완전히'는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다른 강조 부사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완전'이 파생된 원형이라는 점에서 비교 가치가 있어 선택하였다. '완전히'를 제외한 나머지 신조어가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만 사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거나 부정할만한 확고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빈도수의 증가는 사용자의 증가에 비례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신조어가 일부 국한된 화자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있다. 528개의 숙주구와 ‘개-’가 5813회 사용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숙주구가 ‘개-’와 결합하는 빈도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와 자주 사용된 숙주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숙주구가 있는 것이다. ‘개-’와 결합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숙주구를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맨 앞 A는 ‘개-’와 나타난 숙주구의 빈도수를, B는 그 빈도로 출현한 숙주구의 패턴 수, 마지막으로 C는 해당 패턴의 전체 출현빈도로 A와 B의 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측 상단의 2열(A=1, B=251, C=251)은 ‘개-’와 단 1회만(A) 사용된 숙주구는 251개(B)로, 해당 패턴의 출현 빈도가 총 251회(C)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바로 그 아래 3열은(A=2, B=76, C=152) ‘개-’와 2회(A) 사용된 숙주구가 76개(B)이므로 ‘개-’가 76개의 패턴으로 총 152회(C)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4. ‘개+X’의 빈도수에 따른 유형수 자료

A	B	C=A*B	B비율	B누적비율	C비율	C누적비율	A	B	C=A*B	B비율	B누적비율	C비율	C누적비율
1	251	251	47.5%	47.5%	4.3%	4.3%	36	2	72	0.4%	94.3%	1.2%	32.8%
2	76	152	14.4%	61.9%	2.6%	6.9%	37	1	37	0.2%	94.5%	0.6%	33.5%
3	47	141	8.9%	70.8%	2.4%	9.4%	38	1	38	0.2%	94.7%	0.7%	34.1%
4	27	108	5.1%	75.9%	1.9%	11.2%	39	1	39	0.2%	94.9%	0.7%	34.8%
5	16	80	3.0%	79.0%	1.4%	12.6%	40	1	40	0.2%	95.1%	0.7%	35.5%
6	11	66	2.1%	81.1%	1.1%	13.7%	42	1	42	0.2%	95.3%	0.7%	36.2%
7	5	35	0.9%	82.0%	0.6%	14.3%	43	2	86	0.4%	95.6%	1.5%	37.7%
8	4	32	0.8%	82.8%	0.6%	14.9%	44	2	88	0.4%	96.0%	1.5%	39.2%
9	16	144	3.0%	85.8%	2.5%	17.4%	48	1	48	0.2%	96.2%	0.8%	40.0%
10	5	50	0.9%	86.7%	0.9%	18.2%	51	1	51	0.2%	96.4%	0.9%	40.9%
11	1	11	0.2%	86.9%	0.2%	18.4%	52	1	52	0.2%	96.6%	0.9%	41.8%
12	4	48	0.8%	87.7%	0.8%	19.2%	54	1	54	0.2%	96.8%	0.9%	42.7%
13	3	39	0.6%	88.3%	0.7%	19.9%	70	1	70	0.2%	97.0%	1.2%	43.9%
15	2	30	0.4%	88.6%	0.5%	20.4%	71	1	71	0.2%	97.2%	1.2%	45.2%
16	3	48	0.6%	89.2%	0.8%	21.2%	75	1	75	0.2%	97.3%	1.3%	46.4%
17	4	68	0.8%	90.0%	1.2%	22.4%	78	1	78	0.2%	97.5%	1.3%	47.8%
18	4	72	0.8%	90.7%	1.2%	23.7%	92	2	184	0.4%	97.9%	3.2%	51.0%
19	1	19	0.2%	90.9%	0.3%	24.0%	136	1	136	0.2%	98.1%	2.3%	53.3%
22	2	44	0.4%	91.3%	0.8%	24.7%	142	1	142	0.2%	98.3%	2.4%	55.7%
23	1	23	0.2%	91.5%	0.4%	25.1%	148	1	148	0.2%	98.5%	2.5%	58.3%
25	2	50	0.4%	91.9%	0.9%	26.0%	153	1	153	0.2%	98.7%	2.6%	60.9%
26	1	26	0.2%	92.0%	0.4%	26.4%	155	1	155	0.2%	98.9%	2.7%	63.6%
27	3	81	0.6%	92.6%	1.4%	27.8%	171	1	171	0.2%	99.1%	2.9%	66.5%
29	1	29	0.2%	92.8%	0.5%	28.3%	219	1	219	0.2%	99.2%	3.8%	70.3%
30	1	30	0.2%	93.0%	0.5%	28.8%	255	1	255	0.2%	99.4%	4.4%	74.7%
31	2	62	0.4%	93.4%	1.1%	29.9%	395	2	790	0.4%	99.8%	13.6%	88.3%
32	1	32	0.2%	93.6%	0.6%	30.5%	682	1	682	0.2%	100%	11.7%	100%
33	2	66	0.4%	93.9%	1.1%	31.6%	합계	528	5813	100%		100%	

표 4를 통해서 '개-'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가 528개의 숙주구와 사용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개-'가 어떤 숙주구와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거 '개-'의 사용 범위와 비교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강조 부사어의 사용범위와도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개-'가 모든 숙주구와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와 1회만 사용된 숙주구의 패턴수는 251개로 총 패턴수 528개의 절반에 육박(47.5%)하고, 범위를 넓혀, 10회 미만 '개-'와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는 453개로 총 패턴수의 86%를 차지한다. 한편, '개-'와 10회 미만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가 528개 중 453개로(86%)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86%의 숙주구와 나타난 '개-'의 누적 빈도수는 1009회로, 총 출현 빈도수 5813회의 17.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개-'가 특정 숙주구와 집중적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와 10회 이상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는 75개로 전체 528개의 14.2%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과 사용된 '개-'의 사용 빈도수는 4804회로 전체 5813회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개-'와 가장 자주 결합한 10개의 숙주구의 경우, 사용 빈도수가 2715회로 거의 50%에 육박하여 '개-'가 사용되는 두 번 중 한 번은 이 열 개 숙주구 패턴 중 하나와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가 48시간 동안 528개 숙주구와 5813회 사용됐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정 숙주구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언어 사용과 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가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가 10회 이상 사용된 숙주구를 빈도수 순으로 나열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고빈도 '개+X' 목록 및 사용 빈도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	개웃긴다	682	39	개지랄	29
2	개빡친다	395	40	개빠르다	27
3	개좋(아한)다	395	40	개오랜만	27
4	개쩨다	255	40	개쫓	27
5	개소리	219	43	개섹시(하다)	26
6	개잘	171	44	개고생	25
7	개예쁘다	155	44	개존잼	25
8	개많다	153	46	개터지다	23
9	개귀엽다	148	47	개존잘	22
10	개오지다	142	47	개충격(받다)	22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1	개짱	136	49	개에바	19
12	개싫(어하)다	92	50	개간지(나다)	18
12	개짜증(나다)	92	50	개노잼	18
14	개부럽다	78	50	개설레(다)	18
15	개졸리다	75	50	개시끄럽다	18
16	개재미(있다)	71	54	개빨리	17
17	개무섭다	70	54	개사랑하다	17
18	개씨	54	54	개소름돋다	17
19	개출다	52	54	개신기하다	17
20	개못	51	58	개어렵다	16
21	개쓰레기	48	58	개열심(히)	16
22	개놀라다	44	58	개행복하다	16
22	개씹	44	61	개대박	15
24	개피곤(하다)	43	61	개발리다	15
25	개쳐	43	63	개귀찮다	13
26	개뜨금(없다)	42	64	개까리하다	13
27	개떨리다	40	64	개더럽다	13
28	개슬프다	39	66	개멋있다	12
29	개망하다	38	66	개억울(하다)	12
30	개크다	37	66	개존맛	12
31	개아프다	36	66	개힘하다	12
31	개오바(한다)	36	70	개맛있다	11
33	개어이(없다)	33	71	개깜놀	10
33	개힘들다	33	71	개나쁘다	10
35	개꿀	32	71	개당황(하다)	10
36	개너무	31	71	개미쳤다	10
36	개박살(나다)	31	71	개일찍	10
38	개새끼	30			

표 5에 나타난 ‘개+X’ 예제들은 실제 사용된 개개의 예문들과 어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말에서 술어의 어미는 시제나 대화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웃기다’라는 술어의 형태는 ‘웃겨, 웃긴다. 웃기네, 웃기고 있네, 웃졌다’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위 표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웃긴다’라는 유형으로 통합한 것이다. 나머지 74개의 예문들도 다양한 형태의 예문을

대표 예제로 통합한 것이다. 위의 '개+X' 유형의 실제 예문들은 (3)과 같다. 지면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빈도 순으로 상위 10개 유형의 예문을 소개한다.

- (3) a. 아 개웃겨 그걸 왜 귀에 꽂아 ㅋㅋㅋㅋㅋㅋㅋㅋ
 b. 맨날 그럼 진짜 개빡쳐 그래놓고 장난이래ㅋㅋ
 c. 그것도 운이라니까 진짜 번개 맞아서 공유기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ㅋㅋ
 ㅋ ㄹㅇ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진 모르겠지만 형은 그냥 운이 개 좋거나 음청 나쁘
 거나 둘중 하나인듯 ㅋ 중간이 없어 형은.... ㅋ
 d. 원더우먼 개쩌나봐 진짜ㅍㅍㅍㅍ
 e. 어디서 내일이 종말이라는 개소리가 나온거야 난 아직 못해본게
 너무 많단말이다-.
 f. 야 나대지마 나 짜파게티 개잘끊임
 g. 의도에 왔다가 이제 가려고 배 기다리고 있음 개이쁠것이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듯.. -0-;
 h. 아 아까 수정할거 개만아았는데막상 보니까 기억은 안나고 잠은오고
 I. ㅋㅋㅋ 표정 개귀여운데 ㅇㅈㅇ..
 j. 라이브 개오진다진짜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는 통사적으로 과거 숙주구가 명사구인 경우에만 결합하였으나 현대국 어에서는 숙주구가 비명사구인 경우에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개-'가 화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아주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명사' 유형과 새로운 '개+비명사구' 유형의 패턴수와 빈도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가 명사구와 결합하는지 비명사구와 결합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간단하지만 은 않다. 특별한 테스트를 적용해보지 않고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4)의 예문을 살펴보자.

- (4) a. 개웃긴다
 b. 개맛있다

(4a)의 '개웃긴다'의 경우에는 '웃긴다'라는 숙주구가 명사구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가 비명사구에 붙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4b)의 경우에는 '개-'가 '맛'이라는 명사구와 결합하는지 아니면 '맛있다'라는 전체 비명사구 술어와 결합하는지 한 눈에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형용사구는 명사구를 수식하는데 사용되고, 부사구는 비명사구를 수식하는데 사용된다는 통사적 성질을 이용하고자 한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구인 ‘엄청난, 말도 안 되는’은 명사구 ‘소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비명사구인 ‘웃기다’는 수식할 수 없다. 반면에, 부사구인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는 비명사구인 ‘웃기다’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명사구인 ‘소리’와는 같이 사용될 수 없다.

- (5) a.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b.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웃기다.

(4)의 예문들로 돌아가서, 접두어 ‘개-’를 (5)에서 사용된 형용사나 부사로 대체해 보자. 비명사구 술어 ‘웃기다’와 결합하는 ‘개-’는, (6a)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인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로 대체 가능하지만 형용사인 ‘엄청난/말도 안 되는’으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반면, 명사구인 ‘소리’와 결합하는 ‘개-’는, (6c)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로는 대체 가능하지만 부사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4b) ‘개맛있다’의 ‘개-’는, (6b)에서 볼 수 있듯이, (4a)의 ‘개웃기다’와 같은 방식으로 (4c)의 ‘개소리이다’와는 다르게 사용된다. 따라서, ‘개맛있다’의 ‘개-’는 비명사구 술어 ‘맛있다’를 수식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6) a. 개웃긴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웃긴다
 b. 개맛있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맛있다
 c. 개소리이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일반적으로, ‘개-’와 공기된 술어가 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숙주구는 명사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술어 전체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6b,c)는 술어인 ‘맛있다, 소리이다’가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6b)에서는 ‘개-’가 술어 전체를 숙주구로, (6c)에서는 ‘개-’가 술어 내의 명사만을 숙주구로 취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7)과 같다.

- (7) a. 개[맛있다]
 b. [개소리]이다

그러나, (7)과 달리 ‘개-’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8)의 예를 보자. (8a)의 ‘개충격(받다)’에서 ‘개-’는 형용사인 ‘엄청난/말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부사인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8b,c)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가 뚜렷하게 ‘충격’이라는 명사만을 꾸며 준다거나 ‘충격받다’라는 전체 비명사구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8d)에서처럼, 둘 다 수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8) a. 개충격(받다).
 b. 엄청난/말도 안 되는 충격(받다)
 c.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 충격(받다)
 d. [개충격]받다/[개]충격받다

정리하자면, ‘개+X’의 통사적 형태는 ‘개-형용사/부사 대체’ 테스트를 통해서 (9a,b,c)와 같은 세 가지 기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9d)의 네 번째 형태는 (9b)의 2유형으로 통합 가능하지만, 축약형이라는 독특함이 있어 별개의 형태로 취급하고자 한다.

- (9) a. 1유형: 개+명사구
 b. 2유형: 개+비명사구
 c. 3유형(중의형): 개+명사구, 개+비명사구
 d. 4유형(축약형): 개존잘

(9)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2018년 자료 ‘개+X’ 528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전체 개+속주구 통사 유형, 패턴수, 빈도수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빈도수	빈도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74	14%	527	9%
2유형 (개+비명사구)	350	66.3%	4695	80.8%
3유형 (중의형)	87	16.5%	477	8.2%
4유형 (축약형)	17	3.2%	114	2%
합계	528	100%	5813	100%

기존에 사용되던 형태인 1유형은 총 528개의 ‘개+X’ 중 14%인 74개 패턴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새롭게 나타난 2유형인 ‘개+비명사구’ 형태의 패턴수는 350개로 전체 패턴수의 66.3%에 이른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개+비명사구’ 형태의 술어가 ‘개+명사구’ 형태 보다 4.7배 이상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유형인 87개의 중의형을 2유형으로 포함시킨다면 이 둘 간의 격차는 더 심해진다. 그 합이 총 423개로서 전체 ‘개+X’ 패턴수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개+X’의 1유형과 2유형은 빈도수와 관련하여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1유형인 74개의 ‘개+명사구’가 총 527회 사용되어 전체 사용 빈도수 5813회의 10%도 되지 않는 반면에, 2유형인 ‘개+비명사구’ 350개는 총 4695회 사용되어 전체 사용 빈도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형인 2유형이 구형인 1유형보다 8배 이상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비명사구’ 유형의 패턴수가 ‘개+명사구’ 유형의 패턴수보다 약 4.7배 이상 많으며 8

배 이상 더 자주 사용된다는 이 사실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 즉 ‘개’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528개 패턴에서 범위를 좁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6이 보여 주지 못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0회 이상 사용된 75개 패턴의 통사 유형을 (9)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0회 이상 사용 된 ‘개+X’의 통사 유형, 패턴수, 빈도수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빈도수	빈도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4	5.3%	324	6.7%
2유형 (개+비명사구)	57	76%	4062	84.6%
3유형 (중의형)	9	12%	331	6.9%
4유형 (축약형)	5	6.7%	87	1.8%
합계	75	100%	4804	100%

10회 이상 사용된 75개의 ‘개+X’ 중 1유형인 ‘개+명사구’ 형태를 가진 구는 단 4개에 불과하다. 이는 2유형인 57개의 ‘개+비명사구’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4유형 ‘개감늘’과 같은 축약형보다도 더 적은 수치이다. 이는 자주 사용되는 ‘개+X’일 수록 ‘개+비명사구’ 형태가 선호되며 ‘개+명사구’ 형태는 몇몇 특정한 구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실제로, 가장 자주 사용된 10개의 구에서 ‘개+명사구’ 형태를 가진 것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개소리’ 하나뿐이고 나머지 9개는 ‘개+비명사구’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 7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축약형의 사용이다.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축약형의 전체 패턴 수는 17개에 지나지 않으나, 이 중 5개가 10회 이상 사용되어 30%에 육박하는 수가 자주 사용되는 군에 속한다. 이러한 비율은, 전체 74개 중 4개만이 10회 이상 사용되는 ‘개+명사구’ 유형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심지어는 ‘개+비명사구’의 16.3% 보

표 8. 통사 유형별 전체 패턴 대비 고빈도 패턴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10회 이상 사용된 패턴수	10회 이상 사용된 패턴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74	14%	4	4/74 (5.4%)
2유형 (개+비명사구)	350	66.3%	57	57/350 (16.3%)
3유형 (중의형)	87	16.5%	9	9/87 (10.4%)
4유형 (축약형)	17	3.2%	5	5/17 (29.4%)
합계	528	100%	75	75/528 (14.2%)

다도 높다. 이는 축약형이 패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화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용된다는 형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3.2. ‘개+X’ 의 의미적 사용 양상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접두어 ‘개-’를 통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기능 또한 확장시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개-’가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현대국어에서 ‘개-’는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 숙주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10)의 예문을 살펴보자.

- (10) a. 소리 → 개소리
 b. 고생 → 개고생
 c. 여신 → (*)개여신
 d. 똑같다 → (*)개똑같다

‘개-’는 과거에 (10a)와 같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소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소리’로 전환시키거나 (10b)와 같이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 ‘고생’과 결합하여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고생’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적 기능 때문에, ‘개-’는 (10c)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여신’과는 결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과거 불가능하였던 (10c)와 같은 예문이 자연스럽게 통용된다. 이는, ‘개-’가 숙주구인 ‘여신’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신’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를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10d)에서 ‘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똑같다’와 결합하여 ‘완전히’와 같은 강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개-’는 숙주구 자체의 의미와 ‘개+X’ 전체 의미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1유형 (부부형 - 앞 글자를 따서), 중립적인 숙주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2유형 (중부형), 긍정적인 숙주구와 결합하여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3유형 (궁궁형), 중립적인 숙주구와 결합하여 중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4유형이 (중중형) 있는 것이다.

- (11) a. 1유형 (부부형): 숙주구 (부정적 의미) → 개+숙주구 (부정적 의미)
 b. 2유형 (중부형): 숙주구 (중립적 의미) → 개+숙주구 (부정적 의미)
 c. 3유형 (궁궁형): 숙주구 (긍정적 의미) → 개+숙주구 (긍정적 의미)

d. 4유형 (중중형): 숙주구 (중립적 의미) → 개+숙주구 (중립적 의미)

접두어 ‘개-’의 의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4개의 유형을 가진 ‘개+X’가 현재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 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개-’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11)의 기준에 따라 자세히 분류하고자 한다.

(11)를 기초로 ‘개+X’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들이 알고 있는 한, 어떤 단어의 긍·부정성을 명확히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학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긍·부정성을 구분하고자 한다. ‘웃긴다,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는 긍정으로, ‘빡친다, 나쁘다’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는 부정으로, ‘많다, 똑같다’와 같이 긍·부정성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경우는 중립으로 분리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의미 유형에 따른 ‘개+X’ 패턴수, 빈도수

유형	패턴수	빈도수
1형 (부부형)	258	2005
2형 (중부형)	15	255
3형 (궁궁형)	146	2674
4형 (중중형)	109	879
합계	528	5813

접두어 ‘개-’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인 3유형은 총 146개로 전체 528개 패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인 1유형은 총 258개로 전체의 약 49%,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현대국어에서 ‘개-’는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 크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구와 비교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사실, 즉,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의 전통적인 의미가 신조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받

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면에서 부정적이다. 먼저, '개-'의 전통적 의미와 신조 의미의 분포를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정에 긍정을 대립시키기 보다는 중립을 포함한 비부정을 대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는 4유형 또한 3유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다 새롭게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이다. 1유형과 2유형을 전통적 의미로, 3유형과 4유형을 신조 의미로 묶어 비교하게 되면, 그 결과는 273 대 255, 거의 50대 50으로 백중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의 전통적인 의미가 신조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조 의미가 전통적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 '개+X'의 패턴수가 아닌 빈도수를 고려해 보자. 비록, 3유형이 (궁궁형) 1유형에 (부부형) 비해 패턴수는 적지만 사용 빈도수는 2674>2005로 오히려 더 높다. '개-'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 둘 간의 격차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2유형과 4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벌어진다.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사용된 총 빈도수는 2260인 전체의 39%인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 없이 사용되는 빈도수는 3553으로 전체 6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주 사용되는 '개+X'일수록 위에서 살펴 본 전통적 의미와 신조 의미 간의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0회 이상 사용된 75개의 '개+X'를 살펴보자.

표 10. 고빈도 '개+X'의 의미유형에 따른 패턴수, 빈도수

유형	패턴수	빈도수
1형 (부부형)	32	1454
2형 (중부형)	1	219
3형 (궁궁형)	27	2481
4형 (중중형)	15	650
합계	75	4084

표 9에서 보았듯이, '개+X' 전체 528 패턴 중, 1유형과 3유형은 258:146 비율이었고 1+2유형과 3+4유형은 273:255이었다. 그러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0회 이상 사용된 경우만을 고려하면, 1유형과 3유형은 32:27로 차이가 거의 없으며, 1+2유형과 3+4유형은 33:42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빈도수와 관련해서는 신조 의미가 전통적 의미를 두 배 이상 앞선다. 3유형의 빈도수가 1유형의 빈도수에 비해 2481:1454로 훨씬 앞서 있고 3+4유형과 1+2유형의 빈도수는 3131:1673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10개의 '개+X'를 살펴보자.

표 11. '개+X'의 고빈도 상위 10개의 의미유형, 빈도수

빈도 순위	패턴	유형	빈도수	합계
1	개웃긴다	3유형(공공형)	682	1948
2	개좋(아한)다	3유형(공공형)	395	
4	개편다	3유형(공공형)	255	
6	개잘	3유형(공공형)	171	
7	개예쁘다	3유형(공공형)	155	
9	개귀엽다	3유형(공공형)	148	
10	개오지다	3유형(공공형)	142	
2	개빡친다	1유형(부부형)	395	395
5	개소리	2유형(중부형)	219	219
8	개많다	4유형(중중형)	153	153
합계			2715	2715

화자들에게 가장 애용되는 10개의 '개+X' 중 7개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빈도수 또한 전체 2715회 중 1948(72%)회로써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결론적으로, '개-'가 신조 의미로, 즉,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닌 숙주구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패턴수는 전체의 약 50%, 빈도수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주 사용되는 '개+X'일수록 신조 의미의 패턴수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개-'가 접두사를 넘어 '완전'과 같은 강조 부사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 논의를 통해, 현대국어에서 '개-'는 강조 부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가? 즉, 부정적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 방식과 강조 부사로서 사용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1유형(부부형)과 2유형(중부형)을 '개-'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1유형인 부부형을 전통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유형인 '개빡친다'와 같은 경우에서도 '개-'의 역할이, 3형인 '개웃긴다'와 마찬가지로,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빡친다'와 '개웃기다'에서 '개-'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숙주구의 의미가 하나는 긍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유형인 중부형은 이런 식의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소리'의 경우에 '개-'가 '소리'를 강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유형인 중부형은 '개-'가 숙주구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인 경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그런데, 중부형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수가 15개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중부형을 대표하는 몇몇 예를 살펴보자.

(12) 개소리, 개관, 개논리, 개뿔, 개기름, 개떡, 개꿈, 개쏘...

(12)의 예들은 모두 기성세대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다. 즉, 2형인 중부형은 과거 부모 세대가 사용하던 소수의 단어를 젊은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사용하는 경우인 것이다.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신세대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수의 중부형을 사용하는 하지만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세대들은 ‘개-’를 신조 의미인 부사로만 사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숙주구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 전통적인 유형으로 보이는 1유형의 경우에도, 사실 신세대들은 ‘개-’를 신조 의미인 강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개+X’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성 있게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트위터로 부터 5월 20-21일 48시간 동안 10년에 걸쳐 사용된 트윗을 추출하였으며 ‘개+X’가 포함된 트윗을 걸러내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X’의 사용이 2010년 684회 비해 2018년에는 거의 9배인 5911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가 과거 10년간 역동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개+X’가 현대국어에서 통사·의미적으로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18년 5813회 사용된 528개의 패턴을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하여 패턴수와 빈도수를 비교하였다. 통사적으로, 새로운 유형인 ‘개+비명사구’가 기존의 유형인 ‘개+명사구’에 패턴수나 빈도수에 있어 8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접두어 ‘개-’가 새로운 유형인 강조 부사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가 전체 528개 중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개-’가 현대국어에서 통사·의미적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개+X’가 지난 10년에 걸쳐 통사·의미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2018년 자료 뿐만 아니라 이전의 자료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출한 자료를 일일이 정제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는 후에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12). 통신 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1, 61-87.
- 김정선, 이필영, 김태경, 이삼형, 장경희, 전은진. (2011).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 유행어, 은어 사용 실태. *한국언어문학*, 77, 285-324.
- 김정선, 이필영, 김태경, 이삼형, 장경희, 전은진. (2013).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조사. *국어교육*, 140, 153-181.
- 김태경, 장경희, 김정선, 이삼형, 이필영, 전은진. (2012). 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은어,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국제어문*, 54, 43-93.
- 노명희. (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107-143.
- 배상복. (2016). [우리말 바꾸기] 개종다. *중앙일보* 온라인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19838076>
- 손평호. (2014). '개-'의 생산성과 범주 설정의 문제 - 신어 '개+X'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9, 85-116.
- 엽영임, 양명희. (2016). 강조어 '완전'의 사용에 대한 고찰 - 구어와 통신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2, 251-269
- 이탁. (1967). 국어 어원 풀이의 일단. *한글*, 140, 26-72
- 이하얀, 황화상. (2017). '완전'의 문법 기능의 확장에 대하여. *한국어학*, 74, 147-167.
- 임현열. (2015).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어형 변화의 한 양상 - 정도부사 '캡 (<Captain> > 캐 > 개'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3, 111-136.
- 장경현. (2019). 신조어 접사의 형태·의미 특성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 311-336.
- 장부리. (2012). 한중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진, 이삼형, 김정선, 김태경, 이필영, 장경희. (2011).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371-406
- 정상준, 윤보현, 오효정. (2019). 언어 네트워크 기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및 매체별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81-207.
- 표준국어대사전*. (2020). 국립국어원. 온라인주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홍달오. (2014). 접두사의 준부사화 경향에 대한 고찰 접두사 '개'를 중심으로. *언어*, 39(1), 231~249.

Oh, H.-J., Kim, C.-H., & Jeon, J.-G. (2020). Public sense of water fluoridation as reflected on Twitter 2009-2017. *Journal of Dental Research*, 99(1), 11-17.

오효정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의료정보 융합연구소

전화: (063) 270-3208

이메일: ohj@jbnu.ac.kr

김종혁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의료정보 융합연구소

전화: (063) 270-3209

이메일: chonghyuck@jbnu.ac.kr

Received on January 19,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3, 2021

Accepted on March 30, 2021